

아직
모름
집

강정석
권용주
김영글
이은우
이정민

JUNGSUCK KANG
YONGJU KWON
YOUNG-GLE KIM
EUNU LEE
JOUNGMIN YI

2013. 5. 16 - 6. 28
아트 스페이스 풀

MAY 16 - JUNE 28, 2013
ART SPACE POOL

house
yet unknown

아직 모르는 집

‘하나의 집(a house)은 인간(man)의 껍질(shell)이자, 그의 연장이고 그의 펼쳐짐이며 그의 정신적인 발산이다.’
– Eileen Gray

나는 부모로부터 독립(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립’)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동과 정착을 반복해왔다. 세상에 집은 남아도는데 살 곳이 없어 떠도는 부조리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가 처한 현실이기도 했다. 보증금을 구한 친구에게 월세를 보태거나 친구들과 공동거주를 하는 등, 다양한 거주 형태를 거치면서 나의 고민은 두 가지로 정리되었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집에서 살 수 있는가.

이번 전시 **아직 모르는 집**은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탄식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규범적인 ‘집’을 둘러싼 욕망과 불안을 조망한다. 그리고 ‘집’을 개별적인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에서 확장시켜, 현실에 발 딛기 위한 삶의 자리로 인식한다. 나아가 오늘날 집을 둘러싼 불안한 징후 속에서, “아직은 모르는” 새로운 자리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두 말할 것 없이, 집은 개인이 한 사회 안에서 장소를 점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실존의 요소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집’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거주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투기와 자본의 상징으로서의 집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욕망이 충돌하는 장이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자본이 부의 원천이자 표식이 된 것은 60, 70년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를 거치면서부터이다. 여기에 신자유주의 경제논리 기반의 부동산 경기 회복 정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폭등을 불러왔고, 주거를 둘러싼 사회적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집에 대한 ‘정서적인 의미’ 또한 바뀌고 있음을 암시한다. 극심한 청년실업과 노동유연화 등 고용구조의 변화는 대학 졸업 후 취직과 결혼이라는 소위 ‘정상적’으로 분류되어온 한국인의 생애 과정을 완전히 바꿔

A House yet Unknown

“A house is not a machine to live in. It is the shell of man, his extension, his release, his spiritual emanation.” – Eileen Gray

I have repeated a long term pattern of moving and settling down to become independent (self-supporting, to be precise) from my parents. The irrational state of wandering about with no place to live when there are abundant housings in the world was the reality I was facing, not someone else’s story. While having gone through various forms of living, by sharing rent with a friend who managed to pay the deposit or by sharing the place with several friends, my thoughts on the issue were gradually grouped into two categories. Whom shall I live with, and what kind of house could I live in.

i

This exhibition titled **A House yet Unknown** commenced with the personal sigh of “where and with whom shall I live” and it presents views on the desire and nervousness regarding the concept of normative ‘House’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Additionally, the meaning of ‘house’ as a base of individual life is expanded, to be perceived as the site of life to place our feet on the ground of reality. Furthermore, in the midst of nervous symptoms regarding current housing problems, the quest is launched for a new place “yet unknown.”

It is needless to say that a house is an element of existence for the pursuit of happiness, possessing a space of one’s own in a society. Particularly in the Korean society, ‘house’ has more to offer to the meaning of a residential space to live one’s life in. The house is a symbol of speculation and capital, thus it has become a platform of conflicts among various desires floating about our society. It is since the development ideology of the 60s and the 70s that real estate capital has become the source and sign of wealth. Additionally, the policy for the recovery of real estate economy based on neo-liberalistic economic logic had rather boosted the house price mostly in the capital area. Thus, the social inequality regarding housing gradually grew more serious than ever. This change implies the transformation of the ‘emotional meaning’ of house as well. The change in the

놓고 있다. 청년기가 연장됨에 따라 원룸, 고시원과 같은 일인 주거가 확대되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롯한 이른바 이성에 가족의 넓은 평수의 아파트, 자가 주택의 중산층이라는 ‘규범적 집’을 향한 욕망은 위태로워졌다. 임대 갭신을 통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세입자들의 사회, 이른바 ‘신유목민 사회’의 풍경은 사실상 세대를 초월하여 공감하는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의 위기에도, 이를 존속하거나 강화하려는 생애 과정의 규범성과 더 넓고 더 높은 주거를 소유해야 한다는 욕망은 개별적으로 자라나고 있다. 때문에 집과 관련한 거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개인이 ‘더 좋은 집’을 사는 것으로 수렴된다. 이처럼 견고한 ‘규범적인 집’을 허물기 위해선, 집의 특정 정체성을 확보하기보다는 다양한 삶의 표정들을 드러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전시에서는 ‘집’을 오늘날 우리 삶이 처한 ‘위기’가 드러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집이라는 공간적 범주는 영토적인 정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와 관련된 불안정한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비판적인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고 또 필요한 ‘집’을 상상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강정석, 김영글, 권용주, 이정민, 이은우, 이 다섯 명의 작가들은 전시가 제안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일상의 재료를 작품에 끌어들이 현실과 충돌하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드러낸다.

이은우는 수도권에 있는 각기 다른 평수의 아파트 평면도에서 도출한 특징적인 구조에 다양한 형태의 유리창을 부착한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업은 내-외부를 가르는 ‘창문’의 폐쇄성과 구획성을 통해, ‘아파트’로 대표하는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주거유형과 그것이 표상하는 중산층의 욕망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으며 건물로 진입은 철저히 통제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욕망할 수는 있으나 소유할 수 없는 대상으로 투명함의 역설을 갖는다”는 김성홍의 말에서 드러나는 ‘아파트 공화국’의 분열은, 이 작품에서 양식화되어 부서지기 쉬운 개인의 욕망을 대변한다.

김영글은 오늘날의 주거를 비정규적 삶과 연계된 ‘임시적 거처’로 바라본다. 전시 개막일에 공연되는 일인극 **불 속에서는** 임대조건을 갱신하며 집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세입자-여성의 내레이션을 통해, 비정규직, 파트타임, 여성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대의 얼굴에 주목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로지르는 ‘임시성’이라는 공통조건은, 불안정한 주거문제를 단지 세대적인 문제로

structure of employment such as extreme state of unemployment of the young population and labor flexibility, has and is changing the life pattern of a Korean. Before, the so-called ‘normal’ pattern would be post-university degree awarded with employment and marriage. Now, the period of youth has been prolonged, with many living in one-room apartments and other residence type for single person, such as gosiwon. This trend has threatened the desire for a ‘normative house’, which signifies a self-owned big apartment of a middle class family issued from a heterosexual couple as well as the ‘dream to buy my house’. The society of tenants constantly in the move, through renewal of rent, the landscape of the so-called ‘neo-nomad society’ is in fact the reality with which all generations empathize. However, despite such crisis of norm, the urge to continue or strengthen such norm and the desire for the possession of a bigger and higher priced house are still growing on individual scales. Therefore, the solution for almost all the problems related to housing would be converged to individuals purchasing a ‘better house’. To demolish such solid ‘normative house’, it would be required to reveal expressions of diverse patterns of life, instead of trying to secure a certain identity of the house.

In the context of this exhibition, the ‘House’ is perceived as the place in which is revealed the ‘crisis’ our lives are facing nowadays. The house as special territory does not signify a territorial docking but becomes a critical reality which reflects the instable condition of life related to ‘residing’. Through such process of pondering, the attempt is made to imagine a ‘house’ which is available and necessary to many people. The five artists participating in this exhibition, Jungsuck Kang, Young-gle Kim, Yongju Kwon, Eunu Lee and Jungmin Yi, all share the point of issue which the exhibition suggests and accordingly, they would portray the flexibility of contemporary art in their respective manners. The works including 4 newly created works have integrated materials of daily life to depict various positions of life which collide with reality.

Eunu Lee presents installation work consisting of various forms of windows attached to characteristic structures drawn from floor plans of apartments in diverse sizes, located in the capital area. Through the closure and compartmentalization of ‘window’ which divides indoors and outdoors, this work reveals the universal form of residence of the Korean society, represented by the ‘apartment’ and the desire that it represents, set within the middle-low class, in a concise manner. As the segmentation of ‘the Republic of Apartments’ is expressed in the words of Sunghong Kim, “From the inside you can see the outside but from the outside you can’t see the inside and the entrance to the building is strictly controlled; thus the ‘glass’ has the

국한시키지 않는다. 이 작업에서 비정규 상태는 집과 일터를 비롯해 한 개인의 실존과 맞물려 있는 현실인 것이다. “불 속에서 살아야겠다”는 화자의 외침은 자본에 잠식된 공간의 건너편에서 집의 가치를 재 의미화하는 사유이자 결연한 의지이다.

이정민은 **부스러기의 소멸 (1), (2), (3)**에서 용산 참사의 보도사진 일부분을 회화적으로 재해석한다. **옥상 3부작** 중의 하나인 이 작품은 재개발 문제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데, 작품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옥상으로 나선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한 비극과 불행이 오늘날에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자리는 ‘임시적으로’ 모여 사는 장소로서의 철거촌이나 농성장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집’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기 아닌 우리 모두의 현실일 것이다.

강정석은 도시청년들의 일상을 확대해서 바라본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거문제의 불합리성을 인식하는 인물들이, 삶의 행로를 모색하며 악전고투를 벌이는 순간을 일종의 ‘제의적인 행위’로 표현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상적인’ 집을 향한 욕망을 끊임없이 내재화하면서도, 그것의 불가능성에 분열하고 좌절한다. 작가는 이때, 등장인물들이 살림을 줄이기 위해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순간을 따로 떼어 바라보면서, 서로 간에 ‘연대감’이 형성되는 순간을 포착한다. 이를 통해 삶의 복합적인 지층을 보여줌과 동시에, 실패와 배반을 담보할지라도 삶을 지탱하는 힘을 기르는 시도를 드러낸다.

권용주는 불에 타다만 다양한 생활 오브제들을 통해서 소멸되지 못한 채, 어그러진 형태들의 풍경을 연출한다. 소멸될 수조차 없는 ‘타다만’ 흔적들은 어떤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는데, 필사적으로 살아남기를 강요하는 기성의 언어 바깥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청년기의 현실을 보여준다. 나아가 90년대 한국 미술에서 익숙하게 사용되어온 화분, 소쿠리와 같은 플라스틱 오브제를 태워 물성을 변형시킴으로써 오늘날 미술계 안에서 부재한 한 세대의 ‘자리’ 찾기에 대한 작가의 고민으로 확장한다.

이 전시에서 ‘집’은 한국사회의 분열적인 욕망이 충돌하는 공간이다. 거주에 관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집에 투영함으로써, 아직 장소가 되지 못한 더 많은 ‘집’들에 관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방에 대해 상상하고,

paradox of transparency, in the sense that it can be the object of desire but cannot be possessed”, it represents the individual desire prone to be shattered due to conventionalization, in this work.

Young-gle Kim views the current residence as the ‘temporary shelter’ related with the irregular pattern of life. In the monodrama **In the Fire** which will be performed on the opening day of the exhibition, through the narration of a female tenant renewing her rent conditions, wandering about looking for a new home, the general theme lies in contingent employment, part-time work, women and other faces of this era, excluded from the social welfare. The common condition of ‘temporariness’ which connects all these stories does not limit this problem of unstable housing to a generational issue. In this work, the state of being in temporary and irregular circumstances is reality directly issued from the existence of an individual, including housing and work. The narrator cries, “I shall live in the fire!” This message comes from the opposite of the area encroached by capitalism. This cry is the consideration of conferring a new meaning of the value of the house and a firm will.

Jungmin Yi presents **Extinction of the Scraps (1), (2), (3)** (2010) which is a pictorial reinterpretation of the press photos in part, related to the tragic incident in Yongsan (Yongsan disaster). As a part of the **Rooftop Trilogy**, this work reveals the irrationalities of the Korean society regarding the problems of redevelopment. The people depicted in this work as having gone up the rooftop to guard their residence base, remind us of the fact that this kind of tragedy and misfortune are not settled but still going on even at this moment. And this sort of position in life makes us think of demolished residential area where people gather to live ‘temporarily’ or demonstration tents. This is not someone else’s story but the reality of all of us which we absolutely need to face when we talk about the theme of ‘house’.

Jungsuck Kang observes the daily lives of urban youngsters through a magnifying glass. In this exhibition, the characters who have understood the irrationality of the residence issue express the moments of struggling in search of the path of life in ritualistic acts. These characters constantly embrace their desire of ‘ideal’ home while being divided and devastated by the impossibility of such an ideal. Facing this situation, they would repeatedly throw away things to reduce their belongings or buy again, performing a sort of ‘ritual’ with a certain resignation toward reality and as a ‘gesture’ of compromise. This reveals the attempt of strengthening oneself to endure life despite failure and betrayal, as well as displaying the multi-layers of life.

Yongju Kwon portrays a landscape of dislocated forms left on the brink of extinction

날카로운 예민함으로 보이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 예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닐까. 이러한 고민들이,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아직 모르는 집"에 대한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조은비
(아트 스페이스 풀 책임 큐레이터)

* 본 전시는 아트 스페이스 풀의 큐레이터십 비전 창출을 위한 다 학제 기획 프로젝트 **비전 페이퍼**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참고문헌
정민우, **자기만의 방: 고시원으로 보는 청년 세대와 주거의 사회학**, 서울: 이매진, 2011
김성홍, "窓과 門: 현대건축의 역설", 대한건축학회지 [建築] 2월호, 서울: 대한건축학회, 2004

through various daily objects which have been half burnt. These 'half burnt' traces which could not even vanish bring upon some sense of loss since they display the reality of the youth being left with no choice, existing outside of the conventional language which compels us to survive no matter what. Furthermore, burning leads to deforming the materiality of plastic objects such as plant pots and baskets which were frequently used in the Korean art scene in the 90s, and by this method, the artist expands the issue of searching for the 'position' of a generation, inexistent in the current art world.

Eventually, the 'House' in this exhibition is the place where divided desires of the Korean society collide with each other. By reflecting social conflict about housing problems and its contradictions on the house, the discussion would be extended on 'houses' which have not yet become a place. Imagining what would be the room we need and revealing the invisible with an acute sensitiveness, would be the 'position' that art in the current era should take. I sincerely hope that all these considerations would be a certain trigger to start ample stories about "a house yet unknown", to recover our lives.

Eunbi, Jo
(Chief Curator, Art Space Pool)

iv

* This exhibition was organized as a means of **Vision Paper**, the multi-disciplinary curatorial project for the creation of the vision of Art Space Pool curatorship.

* Reference
Min-Woo Jung, **A Room of One's Own: A Sociology of Youth and Housing**, Seoul: Imagine Books, 2011
Sunghong Kim, "Window and Door: Paradox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48(2), 2004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하고, **파동, the forces behind** (두산갤러리, 2012), **끓는 상상, 99°C Artist Showcase** (서교예술실험센터, 2012) 등의 단체전에 참여해왔다. 2013년 3월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첫 개인전 **레디-메이드 인생 IV**를 열었다. 강정석은 언제나 대체될 수 있는 삶의 불안정한 자리에 주목하여, 주체들이 벌이는 타협의 순간을 의식(ritual)의 형태로 관찰한다. 이러한 시도는 체념과 실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대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온전히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강정석



1

JUNGSUCK KANG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t. of Fine Art of the College of Visu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Kang has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The Forces Behind** (Doosan Gallery, 2012), **99°C Artist Showcase** (Seoul Art Space SEOGYO, 2012). In March 2013, he had his first solo exhibition **Ready-made Insaeng IV** at Seoul Art Space SEOGYO. Kang focuses on the unstable, always substitutable positions in life and observes moments of compromises lead by subjects as a form of ritual. This attempt was made to fully keep record of how modern man faces his own life in the midst of resignation and failure.



2



3

1, 2, 3
강정석 Jungsuck Kang
세컨핸즈 어디로든 2nd hands
anywhere
2013, Single channel video with
2 posters, Color, Sound, Still cut

서울시립대에서 환경조각을 전공했고, 부표 (인사미술공간, 2010), 폭포 - 생존의 구조 (문래예술공장, 2011)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권용주는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발휘되는 생존을 위한 임기응변과 그 잔여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정서의 형태나 구조를 구현해내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권용주



1

YONGJU KWON

Majored in Environmental sculpture at University of Seoul, exhibited at shows such as **Buoylight** (Insa Art Space, 2010), **Waterfall - Structure of Survival** (Mullae Art Factory, 2011). Kwon is interested in realizing form or structure of our emotional aspects through observations of how we adapt ourselves to daily conditions and solve issues ad hoc for survival, as well as the remains of such actions.



2

불문학과 조형예술을 전공했고, 현재 서울 돌곶이에 거주하면서 지역예술운동 집단인 돌곶이포럼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언어놀이전 (성곡미술관, 2010), **God save the Mona Lisa** (플랜트 갤러리, 2010),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스페이스 99, 2011), **셀 수 없는 모음** (KT&G 상상마당 갤러리, 2011), **다시-쓰기** (두산갤러리, 2013) 등의 단체전에 참여해 왔으며, 2012년 KT&G 상상마당 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 **Six Fingers**를 열었다. 김영글의 화두는 찰나가 아닌 축적에 관한 것으로, 사물의 물질성이나 시각적 환영보다는 축적된 시간과 이야기를 통해 미술적 성찰의 과제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김영글



1

YOUNG-GLE KIM

Majored in Fine Art and French Literature, currently lives in Dorgozi, Seoul, as a member of Dorgozi Forum which is a group for local artistic movement.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Linguistic Morphology: Art in Context** (Sungkok Art Museum, 2010), **God save the Mona Lisa** (Plant Gallery 2010), **The Eye of a Needle** (Space 99, 2011), **Uncountable Collection** (KT&G Sangsangmadang Gallery, 2011), **Re-Writing** (Doosan Gallery, 2013) and the first solo exhibition **Six Fingers** was displayed in 2012 at KT&G Sangsangmadang Gallery. Kim mostly focuses on matters regarding accumulation, not of fleeting matters and attempts to bring about issues of artistic reflection through accumulated time and stories rather than materiality of objects or visual fantasy.



3

1, 2, 3
권용주 Yongju Kwon
녹는 점 **Melting Point**
2013, Half-burnt stuffs,
120×60×70cm



2

1, 2
김영글 Young-gle Kim
불 속에서 **In the Fire**
2013, Monologue Performance,
Still cut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Play Time**
(문화역서울 284, 2012)와 **셀 수 없는
모음** (KT&G Sangsangmadang 갤러리, 2011) 등에
참여했으며, **300,000,000 KRW, Korea,
2010** (서울: 미디어버스, 2011)을 출판했다.
<http://www.eunulee.com>

이
정
민



1

E
U
N
U
L
E
E

Based in Seoul, participated in exhibitions
such as **Play Time** (Culture Station Seoul
284, 2012) and **Uncountable Collection**
(KT&G Sangsangmadang Gallery, 2011)
and has published **300,000,000 KRW,
Korea, 2010** (Mediabus, Seoul, 2011).
<http://www.eunulee.com>



2

1, 2
이은우 Eunu Lee
특정물건 A Specific Item
2013, Frosted glass, one-way
glass, colored glass, pattern
glass, wired glass, hardwood,
Installation view at Art Space Pool,
260×390×30cm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과 동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2003년에 첫 개인전
**얼굴-풍경 / 근대여성예술가 8인에 대한
오마주**와 논문 “근대여성예술가와 성찰적
근대성” (2004)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로
동양화론의 필법(筆法)에 대한 관심과 직관적
해석이 강조된 회화들을 발표해왔다. 이외에도
예기치 않게 주어지는 삶의 조건들과 전시 환경
자체를 작업 과정으로 수용하면서 파생된 다양한
매체 작업과 옥인 콜렉티브(<http://okin.cc>)
활동을 병행한다. **빈지-퍼지 신드롬** (2007),
감각의 위치 (2009), **옥상 삼부작** (2010)
등 현재까지 4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전,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다.

이
정
민



2



1

J
O
U
N
G
M
I
N
Y
I

Majored in Korean Painting,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After the first solo
exhibition in 2003, **Facescape – Homage
to 8 Women Artists in Korean Modern
Times**, she had obtained her Master's
degree with the thesis titled “Women Artists
in Korean Modern Times and Reflexive
Modernity” (2004). Since then, Yi has
presented works reflecting her interest in
different styles of brush strokes of Oriental
Painting theory and paintings which
emphasize intuitive interpretations. She
also works with various other media derived
from the attitude of embracing unexpected
daily conditions of life and the exhibition
environment itself as the process of work,
as well as participating in projects made by
Okin Collective (<http://okin.cc>). Yi has had
4 solo exhibitions until now and numerous
special exhibitions and projects such as
Binge-purge Syndrome (2007), **The
Location of Sensation** (2009), **Rooftop
Trilogy** (2010).

1
이정민 Joungmin Yi
부스러기의 소멸(1)

An Extinction of Debris (1)
2010, Indian ink & acrylic on
canvas, 97×130cm, Courtesy of
Work on Work Collection

2
이정민 Joungmin Yi
부스러기의 소멸(2)

An Extinction of Debris (2)
2010, Indian ink & acrylic on
canvas, 97×145.5cm, Courtesy of
Work on Work Collection

3
이정민 Joungmin Yi
부스러기의 소멸(3)

An Extinction of Debris (3)
2010, Indian ink & acrylic on
canvas, 97×145.5cm, Courtesy of
Work on Work Collection



3

아트 스페이스 풀
Art Space Pool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9길
91-5

91-5, Segeomjeong-ro 9-gil,
Jongro-gu, Seoul, Korea

T 82 (0)2 396 4805
F 82 (0)2 396 9636
www.altpool.org
altpool@altpool.org

관람시간 (매주 월요일 휴관)
평일 10:00-18:00
주말 11:00-19:00 (하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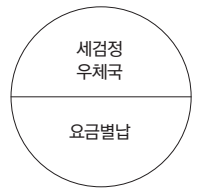
Opening Hours
Weekdays 10:00-18:00
Weekends 11:00-19:00
(during the summer time)
(Closed on Mondays)

아직 모르는 집
A House yet Unknown

강정석
권용주
김영글
이은우
이정민

JUNGSUCK KANG
YONGJU KWON
YOUNG-GLE KIM
EUNU LEE
JOUNGMIN YI

2013 풀 프로덕션 2013 Pool Production



2013. 5. 16 - 6. 28
아트 스페이스 풀

May 16 - June 28, 2013
Art Space Pool

오프닝
2013. 5. 16 (목) 7pm

Opening Reception
May 16, 2013, 7pm

아직
모르는
집

a
house
yet un-
known

일인극 "불 속에서"
5. 16 (목) 8pm

Monologue "In the fire"
May 16, 2013, 8pm

출연
임정희

Performer
JungHee Lim



미술인들 스스로에 의한
생산적 대안 제시는
여전히 유효한 풀의
금지입니다.
이 금지를 후원해주세요.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
006-618258 사단법인
아트 스페이스 풀

